



# 호랑이 꼬리 잡지 마라

## KIA 이틀 연속 뒤집기쇼

KIA 이우성이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5-5로 맞선 9회초 2사 주자 1루에서 역전 결승타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에 6-5 짜릿한 역전승...스타우트 첫 등판서 5자책점 김도영 35호·나성범 18호포...2위 삼성에 6.5게임차 앞서



‘호랑이 군단’이 대구 구장 박매치에서 2승을 낚으면서 우승 행보에 속도를 냈다. KIA 타이거즈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14차전에 6-5 역전승을 거뒀다. 전날 화력전 끝에 15-13 승리를 거뒀던 KIA는 2위 삼성을 6.5경기 차로 밀어내면서 우승 결승선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갔다. 이날 대체 외국인 선수 에릭 스타우트가 첫선을 보였다.

스타우트는 1번 김지찬을 상대로 7구 승부 끝에 방망이가 들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KBO리그에서의 첫 아웃카운트를 삼진으로 기록했다. 이어 김현근은 4구째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했고, 구자욱은 4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다. 2회 스타우트는 선두타자 디아즈에게 볼넷을 허용한 뒤 박병호와 11구 승부 끝에 체인지업을 공략 당하면서 우월 투런포를 내렸다. 스타우트는 강민호에게 우전안타를 맞은 뒤 데뷔타석에 선 ‘루키 양도근에게 좌중간 3루타를 맞으면서 세 번째 점수를 허용했다. 3회에도 스타우트는 박병호에게 ‘한방’을 맞았다. 스타우트는 2사 2루에서 다시 박병호를 마주했고, 이번에는 좌측 담장 밖으로 공이 떨어지면서 0-5가 됐다. 4회부터 경기 흐름이 바뀌었다. 2·3회 4개의 잔루를 남겼던 KIA가 4회초 집무를 췌다. 나성범이 선두타자로 나와 삼성 선발 원태인을 상대로 우익수 키 넘는 2루타를 기록했다. 김선빈

의 타구가 2루수 맞고 뒤로 흐르면서 3루로 이동한 나성범이 이우성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홈에 들어왔다. 이어 스타우트가 삼자범퇴로 응답했다. 스타우트는 4회말 전병우와 안주형을 연속 삼진으로 처리한 뒤 양도근은 2루 땅볼로 잡고 이닝을 끝냈다. 투구수가 97개가 되면서 4회를 끝으로 등판을 마무리한 스타우트의 KBO 데뷔전 성적은 4이닝 4피안타(2홈런) 2볼넷 6탈삼진 5실점이 됐다. 이날 스타우트의 최고 스피드는 151km. 5회초 2사에서 KIA가 추가점을 만들었다. 김도영이 볼넷으로 나갔고, 최형우의 우중간 2루타가 나오면서 홈에 들어왔다. 최형우는 나성범의 중전안타 때 홈을 밟았다. 3-5로 추격하던 KIA는 김기훈으로 중간싸움을 벌였다. 김기훈이 김지찬-김현근-구자욱을 상대한 5회를 삼자범퇴로 막았다. 6회말 내야안타는 내렸지만 연타석 홈런을 기록한 박병호를 좌익수 플라이로 잡은 뒤 강민호를 상대로 병살타를 유도했다. 그리고 7회말 KIA가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원태인에 이어 삼성이 두 번째 투수 최지광을 투

입했고, 김도영이 바뀐 투수를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면서 시즌 35호포를 장식했다. 최형우가 4구째 공에 헛스윙하면서 2스트라이크 2볼, 이때 최지광이 발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오승환이 투입됐고, 최형우가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지만 나성범이 5구째 슬라이더를 받아 우월 동점 솔로포를 장식했다. 5-5에서 김기훈이 7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8회에는 이준영이 출격했다. 선두타자 김지찬을 좌전안타로 내보낸 뒤 노 내기 번트와 도루로 3루까지 진루를 허용했지만, 전날 2이닝 20구 무실점의 피칭으로 승리를 지켰던 필승조 전상현이 출격해 박병호를 4구째 스탠딩 삼진으로 잡아냈다. 9회초 KIA가 드디어 리드를 가져왔다. 2사에서 김선빈의 중전 안타가 나왔고, 이우성이 좌측 펜스 때리는 2루타로 대주자 홍중표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9회말 6-5에서 마무리 정해영이 등장했다. 강민호를 1루수 파울 플라이 아웃으로 잡은 정해영이 전병우는 4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정해영이 대타 윤정빈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대타 김태훈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시즌 28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정해영은 삼성 오승환을 따돌리고 세이브 단독 1위가 됐다. 이날 결승타를 기록하는 등 2타점을 올린 이우성은 “중심에 맞지는 않아서 잡지 않을까 생각했다. 어제 난타전에서 난만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고, 에러를 해서 (황)동하가 흔들린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다”며 “속소에서 많이 힘들었다. 오늘 중요한 경기에 조금이나마 팀에 보탬이 돼서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볼펜싸움을 이끌어준 김기훈은 “한 이닝 한 이닝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던진 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다른 선수들도 다 긴장한다고 생각하면서 올라갔다. 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타자 형들이 조금이라도 쉬고, 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했다”며 “내 공을 후회 없이 던지자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다그치고, 스스로 주문하고 있다. 준비도 잘해 와서 자신있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대구=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런 경기는 처음이야”

영혼이 다 빠져나간 느낌

이걸 쫓아오네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이겨야지

KIS 긴장감은 이 경기의 3배

커쇼가 나와도 맞을 경기

경험과 승리까지 동시에 잡은 ‘역대급’ 공방전이었다. 지난 3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경기가 끝난 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은 “이런 경기는 처음이다”며 입을 모았다. 이날 두 팀은 1회부터 2점씩 주고받았고, 2회초 KIA가 3점을 내자 2회말 삼성이 박병호의 만루포 등으로 6점을 달아내면서 초반부터 심상치 않은 경기를 예고했다. 긴장감 가득한 승부가 펼쳐지면서 양 팀 선발 KIA 황동화와 삼성 백정현은 2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일찍 물러났고, 양 팀 타자들은 7개의 홈런을 합작했다. 4시간 18분 동안 전개된 이날 경기는 15-13, KIA의 승리로 끝났다. 박찬호와 최형우가 나란히 홈런 포함 3안타, 5타점 활약을 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경기가 끝난 뒤 ‘MVP’ 박찬호(사진)는 “날아갈 것 같다. 너무 재미있다. 야구가 이래야 한다. 이렇게 이겨야 한다. 확실히 재미있다. 색다르고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다. 사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이 경기는 ‘미리 보는 포스트 시즌’이었다. 시즌 막바지에 전개된 1, 2위 팀의 대결, 이날 경기장에 2만 4000명이 입장하면서 만원도 기록했다. 배짱 좋은 박찬호에게도 압박감이 느껴진 경기였다. 박찬호는 “만원 관중이기도 했고 응원 소리가 대단했다. 압박감을 느꼈다.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말이 안 되는 경기였다. 삼성도 대단하다. 6점을 내면서 뒤집는 것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다. ‘이걸 쫓아오네’라는 느낌으로 경기를 했다. 쉽지 않았다”면서도 “경기의 중요성을 다들

**지난 31일 15-13 승 이끈 타이거즈**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선수들 모두 꼭 잡자고 했다. 에너지 넘치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멋진 승부를 이뤘다고 자신의 5타점 기록 보다는 팀 승리에 의미를 뒀다. 이날 20개의 공으로 2이닝을 1볼넷 무실점으로 처리하면서 삼성의 추격을 막아낸 전상현도 “초반에 이런 점수 차에, 이런 경기는 처음이다. 역전되고 동점되고 역전되고 동점되고 이런 경기를 처음 봤다. 볼펜에서 보면서 이런 경기는 무조건 타격전이겠다고 생각해서 점수를 최대한 신경 안 썼다”며 “원래 올라가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던졌다. 경기 끝나고 (최)형우 선배님이 ‘커쇼가 나와도 맞을 경기’라고 하시면서 칭찬도 해주셨다. 이런 경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잊지 못할 승부를 이야기했다. 9회말 좋은 수비로 삼성의 추격 분위기를 끊은 김규성은 “영혼이 다 빠져나간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내야수 김규성은 이날 7회말 1루수 이우성 대수비를 들어갔고 9회말 중요한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냈다. 마무리 정해영이 윤정빈에게 솔로포를 맞으면서 15-13, 2점 차로 좁혀진 9회말 무사에서 전병우의 방망이 끝에 맞은 공이 1루로 향했다. 뒷걸음질 치면서 상황을 지켜보던 김규성은 선상 바깥으로 흐르던 공이 방향을 바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집어 올린 뒤 베이스를 밟아 원아웃을 만들었다. 이후 안정을 찾은 정해영은 김동진의 방망이를 헛뜰게 하면서 투아웃을 만들었고, 김지찬은 2루 땅볼로 잡고 시즌 27번째 세이브를 수확했다. 긴박했던 순간 침착한 수비를 보여준 김규성은 “공이 바깥으로 휘었다가 계속 들어왔다. 들어올 것 같아서 계속 기다렸다. 라인에 딱 걸렸을 때 나가서 잡으려고 해서 아웃시켰다”며 “수비 나갈 때마다 상황을 생각한다. 그런데 공이 갑자기 오거나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들 때도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중요한 경기라 진짜 집중을 많이 했다. 경기 끝나고 영혼이 다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나는 후반에 나갔는데도 힘들었다. 그런데 현준 선배님께서 한국 시리즈가 이번이 경기 3배라고 그랬다”며 웃었다. KIA는 긴박했던 역대급 대결에서 집중력으로 승리까지 만들면서 ‘가을잔치’를 위한 큰 자산을 얻었다. /대구=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31일 나주에서 안세영 환영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윤병태 나주시장, 안세영 아버지 안정현씨, 안세영, 어머니 이현희씨, 신정훈 의원.

### ‘셔틀콕 여제’ 안세영, 고향 나주 ‘금의환향’ 윤병태 나주시장·신정훈 국회의원 400여명 열렬한 환영식

안세영이 고향 나주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을 제패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의 환영식이 지난 31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안세영과 안세영의 아버지 안정현씨, 어머니 이현희씨, 윤병태 나주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김재익 나주시체육회 회장,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안세영은 나주에서 태어나 풍암초-광주체중-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했다. 그는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에 이어 이번 파리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 우승까지 거머쥐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 시민들의 기대 속에 행사장에 입장한 안세영은 고향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받은 뒤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환영 덕담에서 윤병태 나주시장은 “부상을 치료해야 하는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고향을 방문한 안세영 선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상투혼과 대한 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역경을 이기고 금메달을 땀다는 부분이 더 빛났다고 생각한다”고 축하했다. 화답을 위해 마이크를 든 안세영은 시민들의 더 큰 환호를 유도하는 퍼포먼스를 한 뒤 그동안의 응원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안세영은 “올림픽 끝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처음이라 긴장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서 이 순간이 행복한 것 같다”며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안세영을 이길 수 있는, 나다운 배드민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안세영 파이팅”을 외치며 환호했다. 이어 장행동 연산포농협조합장과 류재석 연산포발전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안세영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나주시는 고향의 위상을 드높인 안세영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끝으로 안세영은 각 지역에서 자신을 보기 위해 찾아 온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을 비롯해 배드민턴 꿈나무들과 기념사전을 촬영하며 그동안의 응원에 보답했다. 안세영의 아버지 안정현씨는 “이렇게 고향 나주에서도 신경써주시고 세영이를 환영해주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엄마 아빠가 늘 응원하고 있으니 세영이가 앞으로의 일들도 함께 힘차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주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